



宗訓

順天金氏中央宗親會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宗報

제 55 호

2008. 2. 13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종식/ 편집인: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02)400-2501~2502/FAX: (02)400-2505

新年辭



친애하는 국내 외 순천김씨 종친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무사히 보내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종사에 스스로 참여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종무를 대과없이 결산했음을 종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순김의 꿈이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일가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고 종원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정해년은 이 나라 청사에 길이 빛날 새 지도자를 탄생 시켰으며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한미FTA타결 등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을 해냈으며 한해가 마무리 될 무렵 해이한 국민정신이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를 유발시켜 순박한 어민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전 국민이 하나같이 하던 일손을 멈추고 자원봉사자가 되어 기름을 닦고 또 닦아 주어진 여건을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한번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종원들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동원재를 비롯한 제반 계획한 위선 사업을 차질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잠영세족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종원 여러분!

금년도 무자년은 동원재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 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사적지 탐방코스를 지정받는 원년이 되도록 일심 단결하여 진력을 다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그 동안 수고해주신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들과 시, 도 관련 공무원 그리고 후보건설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종친회는 무자년을 종족 화목의 해로 정하고 대동단결하여 다시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저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일로 종원간의 응어리진 찌꺼기가 있다면 화애의 청수로 깨끗이 씻어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다함께 전진하는 명문화벌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자랑스러운 후손이 됩시다.

경애하는 종원 여러분!

중앙 종친회는 항상 사립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정성어린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종무 행정은 전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문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상의 얼과 혼이 살아 숨 쉬는 문헌들을 번역, 발간하여 후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탐독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月潭先生實記』가 저명한 한학자에게 의뢰하여 번역 출판되어 감탄 속에 반질하고 있습니다. 년래 행사인 대학생하계교양강좌는 외부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사적지 탐방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앙 종친회는 우리 순김의 마음의 안식처요 정신적 지주입니다.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는 집행부에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소수의 몇몇 종친이 특정인을 위하여 종친간에 분열을 책동하는 행위에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開花落葉根唯一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의 음덕이 충만하시어 만사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戊子元旦

中央宗親會 會長 鍾植 拜上



戊子年 新年 賀禮會

중앙종친회는 2008년 1월 25일 종친회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원로종친들을 모시고 무자년 신년 하례회를 거행하였다.

저 멀리 전남 해남에서부터 충북 단양까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많은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鳳煥 간사장의 사회로 서로 새배를 하였으며, 鍾植 중앙종친회 회장은 금년 무자년을 종족화목의 휘호 아래 전 종원의 가정이 화목하고 종친간에 돈독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자고 덕담하였다.

이어 회장단과 원로들이 함께 시루떡을 자르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떡과 음료수를 들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



만나고 섬기는 한해가 됩시다



종친 여러분!
 이제 암울했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소망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국가관이 정립되는 원년이 되리라는 바람과 함께 어느 때 보다도 국민적인 화해와 화평이 이뤄지는 역사적인 대망의 한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새해는 종친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약속되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종친회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만 더 많은 날 우리는 모두가 원치 않는 반목과 분열, 비난과 불평으로 살갑지 못한 부끄러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종사(宗事)에 기여 한답시고 종친들의 유익과 화목은 뒷전인체 이전투구에 치우친 일부 몰지각한 종친들이 대다수 종친들을 이간시키고 반목케하는 실로 조상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돌출 행동을 일삼아 종친회의 앞날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치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분열이며, 무엇을 위한 반목인지를 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엄숙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종친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도 국가적인 화해와 화평을 위한 위대한 변화에 발맞춰 종친간의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고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중흥의 역사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종친회의 존속과 위상을 지켜 온 중앙종친회장을 비롯한 스스로 수고하고 헌신한 종친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말없이 종사에 솔선해 오신 수많은 종친 여러분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친회는 올 한해 중흥을 위해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날로 퇴색되어가고 있는 미풍양속과 새로운 가족법 등에 따른 전통 가족관의 급격한 변화가 종친회의 존재와 의미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조상 전래의 숭조 사상과 종친간의 유대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종친회의 존재가치를 변질시켜 그 존속 자체마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현재는 과거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라는 역사의 전통성과 정통성의 토양 위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상이 없는 자손이 없으며 그 자손은 다음 세대라는 후손을 있게 하는 역사의 고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스러운 자손은 빛나는 역사를 쓴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어지며 그 전통과 정통성의 역사가 이어져 후손을 만든다는 엄연한 순리 앞에 오늘 우리 세대의 소중함과 역할의 막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친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자주 만남시다!
 종사에 꼭 참여합시다!
 크고 작은 종사마다 얼굴을 맞대고 웃고 즐겁시다!
 그리고 조상의 빛나는 역사와 유지를 덕담으로 나눕시다!
 혼란스럽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 종친 끼리만이 라도 제발 따뜻하고 살가운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외롭지 않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깁시다!

종친 여러분!
 새해에는 부디 건강하시고 만복을 받으시며 조상을 섬기시듯 종친 간에 서로서로 찾아가 만나고 섬기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

중앙종친회 부회장 참의공 파종희 회장 수연(秀淵)드림



蓮臺齋落成頌詩



忠貞高齋告落成
 昏街從此復光明
 檻前楓樹清秋景
 廉外山川萬古情
 百代遺傳先祖德
 千年餘在會長名
 報本精神如許篤
 孱孫或恐亦添生

충정공의 높은재 각 낙성함을 고하는데
 저문거리 이로부터 다시 빛이 밝아지네
 난간앞에 단풍나무 가을경치 향기말고
 발치밖에 자연현상 한없는옛 정서일세
 오랜세대 전하유업 조상님의 위덕이고
 천세토록 남아있는 선종종직 공명일세
 보존하는 그정신은 돈독함을 같이하고
 약한자손 후조상님 더림힐까 두려읍네

忠貞公 十九代孫 南江 榮熙 謹述

제야의 종소리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한해가 지나갔음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음을 의미한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것과 내 인생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2007년 12월 31일과 2008년 1월 1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따져 봐도 기실은 달라질 것 없다.

다만 우리의 인생 열차가 허망의 역을 떠나 희망의 역으로 나아갈 뿐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한해를 시작하면서 당찬 다짐들을 가졌다. 그러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켜 보니 허망하다. 제대로 해낸 일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허탈하기만 하다.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김없이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에 허망함을 떨쳐버리고 또 다시 희망을 노래한다. 그래서 제야의 종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요 희망의 종소리다.

『헤르만 헤세』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두 팔에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늘의 별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플 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희망을 강구함은 그 얼마나 숙연한 감동인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는 곧 우리 모두의 희망을 버리고 희망으로 건너가자는 以心傳心の 신호이다.

예로부터 설날 그믐날 밤 12시에 범종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설날 그믐날을 한자말로 除日이라고 했으며 그날 밤을 除夜라고 했다. 제야 곧 해가 바뀌는 밤에는 이를 알리는 범종을 쳤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세시 풍속으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동서를 망론하고 종소리는 사학함을 물리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상징으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돼왔다. 박남수 시인은 종소리를 이렇게 읊조렸다.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종소리의 압권은 역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 일 것이다. 언제나 제야의 종소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정서와 감흥을 안겨준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여진다 하여 밤을 새우며 웃놀이를 하거나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그리고 자정이 다가오면 종이 있는 가까이로 가거나 종소리가 잘 들릴 만한 곳에 나가서 깊은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은은한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면 가슴을 짓눌렀던 대립과 갈등 서글픔을 훌훌 날려 보내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게 되어 오늘날에도 제야의 종소리는 여전히 엄숙하고 감동적이다.

이제 우리 모두 송년의 피로감과 망년의 허망한 마음을 뒤로 하고 끝과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는가? 지난날에 대한 회환과 참회,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과 걱정들로 뒤범벅되어 만감이 교차 할 것이다. 누가 꿈과 희망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했는가!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서로에게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채찍질을 할 것인가. 그리하여 이제 곧 얼마 전 울었던 제야의 종소리가 항간에서 일어난 과격한 일부 집단에 의한 상습적으로 헐뜯는 비방과 불목을 조장한 비열한 선동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이 세상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우리 종친 모두에게 손에 손을 마주잡고 새 희망과 돈독한 화목을 약속하는 복된 신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다 같이 빌어보자.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謹賀新年

- 순천김씨중앙종친회 임원일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金秀淵 | 金道淵 (淸溪) | 金富源 | 金學元 (一竹) | 金喆俊 | 金相洪 (雪村) | 副會長 | 金相容 (松巖) | 常任副會長 | 金明在 (德巖) | 金桂在 | 金商泊 (致大) | 金明奎 (東庵) | 金載俊 (杏坡) | 金達賢 (愍樹) | 金采源 (隱石) | 金東柱 (蘆溪) | 金東英 (海石) | 金贊洙 (石堂) | 金升淵 | 金秉煥 | 金沆杰 (歸塘) | 金東杰 (古農) | 金鳳泰 | 金仁培 | 金斗淵 (靑坡) | 金昌淵 | 金柄錫 (龍淵) | 顧問 | 金榮熙 (南江) | 常任顧問 | 金鍾植 (虎岩) | 會長 |
| 金景南 | 金正泰 (峴逸) | 監事 | 金承淵 | 青年幹事 | 金龍熙 | 組織幹事 | 金光弘 (學淵) | 宗務幹事 | 金東元 | 總務幹事 | 金鳳煥 (松湖) | 幹事長 | 金哲宇 | 金鳳遠 (瑞巖) | 金行燁 (湖月) | 金志燮 (峨山) | 金政壹 | 金相默 (春亭) | 金料元 (玄山) | 金鎮錫 | 金祐永 (釜谷) | 金柄鮮 (靑巖) | 金大永 | 金夏淵 (時殷) | 金正雄 (草石) | 金德守 (龍谷) | 金之煥 (靜江) | 金東哲 (龍溪) | 金東均 (靜菴) | 金仁燮 (靑庵) | 金東吾 (常凡) | 金輔淵 (高峰) |

사부곡(思夫曲)



고향은 그리움의 물결이 칠랑대는 호수다. 고향은 추억과 향수가 일렁이는 아련한 꿈속의 호수다.

그리고 아쉬움의 물결이 현란하리만큼 애뜻함을 머금고 출렁이는 동경(憧憬)의 호수다. 고향이라는 호수의 둔덕에는 철따라 아름다운 추억의 꽃이 피고 그리움이 우짖는 새들의 노래가 있다. 그리고 아쉬운 호수의 수면은 너무도 푸르고 투명하여 풍덩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이는가 하면, 죄스러움의 짙은 물안개가 자욱이 피어올라 들어가 잠기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정들었던 고향이다. 고향집 구석구석, 골목길 하나하나 사진보다도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뇌리에 박혀있다. 마을 앞 논길 밭길, 마을뒤 오솔길 산길, 동구밖 다릿길 시냇길 등 눈을 감아도 선히 보이는 고향 길들이다. 가고 싶은 고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어릴 듯 그리운 고향이다.

그러나 선뜻 걸음이 내키지 않는 고향이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고향은 한 곳이 텅 빈 동공으로 하여 그림고 아쉬운 죄스러움의 공백이 너무 크고, 불효자의 한스러운 가슴의 공허와 후회를 감당하기 힘든 탓이다. 마을 뒷산에 잠들어 계신 부모님 앞에,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옛말을 입 밖에 내기조차도 외람되고 부끄러운 불효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 내 고향 <방춘리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적어 본 적이 있다.

“고향길 천리길 그리움에 젖는 길/ 눈 앞에 삼삼이는 꿈길에서 가는 길/ 고향에 가는 발길이 왜 이다지 더딘가// 노자 없어 못가는가 금의(錦衣) 없어 못가는가/ 부모님 유택(幽宅) 앞에 면목 없어 못 가는가/ 고향길 부끄러운 길 불효자가 우는 길// 석삼년 못 비운 길 마음 잡초 우거지고/ 부모님 산소길도 적막 강산 됐으

려니/ 지은 죄 너무 우거져 어찌 해쳐 갈거나//”

나의 아버지(耕軒 金閔洙公)는 1909년(乙酉)생으로 한일합병 전 해에 태어 나셨다. 부농의 가정에서 5남2녀 중 3남으로 태어나 강직하고 직설적인 성격과 씩씩하고 호기로운 기상을 타고 나셨다. 광주학생독립운동(1929년)의 발단 학교인 광주고등보통학교(지금 서중) 재학 중 일본인 교사와 대립하여, 교실에서 ‘일본놈 죽이겠다’고 외치며 의자를 들고 일본인 교사를 쫓아 다닌 사건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전 해에 퇴학을 당하셨다.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처럼 독립운동 유공자의 서훈을 받을 만도 하므로 자세히 알아보라는 주위 분들의 권유가 있었으나 나는 아직 그 일을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심약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

아버지는 퇴학을 당하자 곧장 시골집으로 내려와 결혼을 하셨다. 젊어서는 상당히 미인이셨다는 어머니와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아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농사일을 별로 해보지 않아 도시로 나가 살자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으나 거절당하셨다. 마침 어머니 여동생의 남편(弟郎)이 목포에서 큰 고무 공장을 경영하던 때라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살자는 동생의 권유가 있었으나 아버지는 시골이 좋다고 들어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불같이 급한 성격이고 어머니는 유순한 편이어서 아버지가 큰소리 한번 치면 꾀뾀 못하고 속으로 냉가슴만 앓았다고 나중에 우리 5남매한테 원정을 하셨다. 아버지는 일꾼 두 사람을 데리고 30여 마지기의 농사를 지으며 농사 감독만 하고 아쉬운 것 없이 살았으나 어머니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도시생활을 원하셨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름 때 눈에 물을 대러 나갔다 하면 싸움을 벌여 대부분의 물대는 사람들을 물도랑에 처박곤 하여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는 평판을 들으셨다고 한다. 가름 때 농촌물 인심은 본래 고약한 편이지만 아버지의 하도 과격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가 물대러 나가면 사람들이 술술 피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작은 체구였으나 강단지고 순발력이 좋아 웬만한 싸움에서 저 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고생이나 아쉬운 것이 없이 편히 사신 편이었으나 6.25전쟁이 아버지의 생애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아버지의 두 남동생과 사촌 형님이 죄의 활동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도 부역을 한 걸로 기재되어 요시찰 인물이 되고 생활상 큰 위축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팔팔하던 성품은 많이 누그러지고 아쉬운 것 모르고 사시던 생활도 쪼들리고 위축되었다. 자녀들 학비 등 뒷바라지에 살림은 거덜나다시피 되고 식생활은 거친 조식으로 겨우 위장만 채우는 식이었다.

아버지는 향교 출입을 하시고 바둑과 낚시질로 소일하였으며 약주를 얼근히 자시는 날은 시조 가락을 읊조리시기도 했다. 아버지의 바둑 실력은 시골 사랑방 바둑으로는 상당한 수준급이어서 백여 호의 동네 사람들 중에 대작할 만한 사람이 한두 사람뿐이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3, 4급 정도가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아버지는 성격이 강직하여 바른말하기로 유명했다. 향교일이나 마을일, 문중일에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일은 그대로 넘기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야말로 대쪽 성품이었다.

그런 아버지께서 너무 못 잡수시고 쪼들리는 생활을 하여서였을까? 아니면 그 씩씩하던 기상이 의기소침하게 되어 작은 병마마지도 이기지 못하게 되어서였을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잔병 따위는 물론 큰 병도 이길 수 있는 법인데, 아버지는 위장병을 앓아 소다가 주성분인 전위제리는 하급 약을 상복하시더니 어머니가 60고개에 세상을 하직하시자 3년 후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 소천하시고 말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투지 않았었다. 사람의 일생이 일장춘몽인 것처럼 60여 평생을 한바탕 꿈으로 사시다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천국으로의 여행길을 떠나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의 유품인 비망록에서 다음의 시조 한 수를 발견하였다.

“인생이 들가 셋가 이몸이 네다섯가/ 빌어온 인생이 꿈의 몸가지고서/ 평생에 사울 일만 하고 언제 놀려 하느니.(燕山作)”

나는 아버지의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보는 것 같아 그 메모장 한 귀퉁이에다 불초 측은한 심정으로 이렇게 적어 보았다.

“인고의 명어를 멘 형극의 이량마다/ 해진 옷 조식(粗食)으로 병고(病苦)마저 반추(反芻)하며/

행어나 내일내일에 피를 말린 흔적들.”

효행은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고 하였건만 나는 내 인생의 근본조차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산 셈이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으나 묘비석은 커녕 상석마저 헤드리지 못한 채이다. 아버지는 형식적인 것에 구애되거나 좋아하지 않으셨으나 자식된 도리로서는 하루빨리 세워드려야 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을 뿐이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이런 말이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피부가 닳아져 뼈에 이르고 뼈가 달아져 골수에 이르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만약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經)을 쓰고 독송하며,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재계를 받아 지니며 덕과 복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자식일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과 천국은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속에도 존재한다. 현세에나 내세에 인간의 도리상 꺼리질 것 없이 항상 떳떳해야만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사나 죽으나 지옥을 면하기 어려운 법이다. 죄를 짓고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지옥이요, 비양심적인 일을 하고 마음이 깨름칙하면 반지옥이며, 마땅히 행해야 할 효행을 하지 못하고 천추의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효 자식을 가진 부모는 독사의 이빨에 물린 것보다 더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헤드리기는커녕 걱정만 끼쳐드리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한 자식이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너무도 뻔뻔한 물염치일 것이다. <부모은중경>의 가르침처럼 살이 닳고 뼈가 닳아 골수에 이르도록 부모님을 위하여 복과 덕을 닦아 죄와 허물을 참회한다면 혹시 지옥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헤드리지는 못할 것이니, 뒤늦게 탄식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다만 나의 할 일은 청정 재계하여 기도할 일만 남은 것 같다.

- 아버지 누린 향년 제 나이 넘어서고/ 덤으로 사는 세월 빌고 또 비읍나니/ 사부곡(思夫曲) 속죄의 기도 영생복락 하소서. -

김 종 훈 (수필가, 남은공 16대손, 시조42세)



本末의 顛倒

아무리 재료가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간(鹽分, 염분)이 많으면 싱겁고 맛이 없어 먹을 재미가 없어진다.

이처럼 어떤 단체나 집단도 본래의 성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부분에 사로잡힌다면 참여할 재미나 열성이 없어지고 본말이 전도되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는 허다한 집단과 단체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종교와 집단에서 그 예를 조금씩 찾아보기로 하자.

기독교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2장에서 보면 이웃사랑을 제일로 선포한 청년 예수가 가차 없이 물리적인 행동을 취한 사례가 딱 한번 나타난다.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장수들이 환전해주는 장터로 변한 것을 보고 회초리를 만들어 들고 추상(秋霜)같이 이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환전상의 돈을 쏟아 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린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제사장인들 그 본뜻을 모를 리 없었겠지만 성전을 운영하고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뒷거래를 하므로 해서 성전의 본질을 변질케 한 것이 아니겠나 해석해본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것을 예수는 가차 없이 지탄(指彈)한 것이다.

현대 개신교회에서도 근사(近似)한 예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형화한 교회의 정치적이고 사업적인 것들, 각 교파

가 연합해서 서울의 광장에서 개최하는 부활절 행사 같은 때 엄숙한 행사이지만 막후에서는 자기 얼굴을 내보이려고 소위 지도간에 심한 경쟁을 하고 헌금거출을 위한 획책 등,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 시인 목사께서는 예수의 부활절 행사라기 보다는 가룟유다의 부활인 듯하다고 비꼬았다. 가룟유다는 예수의 제자로서 재정담당자이며 타산이 빨라 대세가 기울었다 판단하고 권력자들의 공작금을 받고 예수를 체포하도록 도운 자이다. 그래서인지 작년도 통계청 발표에서 개신교 신도수가 감소됐다고 했다. 대교단인 천주교도 예배의식 진행을 보면 오래된 관습에 젖어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국민이 탄압 받을 때 성직자들이 나서서 희생을 무릅쓰고 인권운동을 전개한 것은 높이 사고 진리가 살아있는 모습에서 국민의 지도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해에는 일한친선협회에서 한국전통문화시찰단 20여명이 와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寺刹)에 들러 볼 때 대웅전에 많은 신도들이 황금색 대형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시주하는 모습을 본 일본여인이 질문을 나에게 했다. “부처님은 자신(自身)을 신격(神格)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절을 하고 비는가” 였다. 그래서 저로서는 대답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시적이어야만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다고 했다.

절 모퉁이를 돌아설 때 컴컴한 방안에서 한 청년이 분주히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됐다. 여인은 또 물었다. 저 청년은 혼자 무슨 절을 하고 있는가였다.

절에서는 3백번 혹은 천번 등 절을 하므로 자각을 하게 되고 소원을 이루는 예법인듯 하다고 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은 듯 한 태도였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교훈을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 요긴하지 않을까요 하고 되까렸다.

수년전 어느 해인가 전통있는 야당 여자 간부를 선두로 한 일행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전라도 어느 지방의 먼길을 수일간 불교신도들이 공드리는 방법으로 삼보일배를 애처롭게 하는 것이 뉴스에 보도됐다.

그러나 결과는 비전(VISION)이 없는 정당이라고 해서인지 별로 민심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은 본말이 전도된 탓이 아닐런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활 풍습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유교의식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다. 한 예로 어린 시절 추운 겨울 심야에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낼 때 제상을 차리고 절을 한 후에 방문을 열어 놓고 온 가족이 잠깐 동안 집안을 비우고 밖으로 나간다.

조상신이 들어와 흡입(吸入)을 하시도록 정성을 다하는 행위다. 조상신을 신격화해서 후손의 길흉(吉凶)을 좌우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믿어 왔기 때문이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철에 어린 것들까지 나가떨

게 하는 것은 무리인데도 의식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과거는 많이 수정됐지만 조상의 음덕과 유훈을 추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본말의 전도라고 여겨진다.

끝으로 순천김씨중앙종친회 행사에서도 시조의 뿌리를 찾아 환경을 잘 단장하고 제사를 지내고 유훈을 기리는 관행은 중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이 수강 학생을 제외하고는 연로(年老)하신 종친들이 전국에서 먼길을 시조의 묘라도 한번 찾아와 참배하려는 일념에서 교통이 불편한 것을 무릅쓰고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최소한 식숙(食宿)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선(周旋)이 됐으면 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후이거나 종친회에 익숙한 분들과 익숙치 못한 분들이 어울려서 종친간 정이 두터워 지게 하는 대화의 모임을 만들어서 화합이 되게 하고 다음에 다시 오고 싶어지게 하는 소속감을 강하게 가진 회원이 늘어나게 했으면 한다. 중앙종친회의 조직과 기구는 방대하다. 동력을 잘 풀어 넣어서 열심회원들이 모여들어 크게 공헌하는 종친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절대로 본말이 전도되서는 안될 것이다.

金鳳培
(前CBS大邱局長)



김류를 변론하는 괴산진사 이정원 상소

괴산(槐山)에 사는 진사 이정원(李挺元) 등이 상소하기를,
 “신은 듣건대, 한 사람이 구석진 데를 향하여 침울해 하면 온 집안이 침울해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의 한 나라를 한 집으로 삼고 있으니 한 사람이 침울해 하면 한 나라가 침울해 하고 한 나라가 침울해 하면 위망(危亡)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날의 어진 임금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으니 <상서(尙書)>에 이른바 ‘한 필부라도 제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 마치 저자 거리에서 매 맞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전 권지정자(權知正字) 김유(金瓚)는 정유년 여름에 복수군 소모관(復讐軍召募官)에 차정되어 본도에 와서 충주(忠州)에 있는 순찰사 김시헌(金時獻)을 찾아가 보고 복수할 일을 의논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천(鎭川)에서 충주로 갈 적에 김유가 본 고을에서 충주까지의 거리가 몇 리인가를 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충주는 우리 아버지가 전몰한 곳이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은 살아서 오늘까지 그대로 있으니 이는 큰 죄악이다. 어찌 차마 그 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하고 목이 메이도록 울부짖으면서 머뭇거리며 가지 못하니, 그때에 이를 보고 들은 이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충주에 이르니 문위사(問慰使) 송순(宋諄)도 그곳에 왔는데, 하루는 송순이 탄금대(彈琴臺)에 올라 시를 지어 읊고서 김유의 관사에 돌아와 차운(次韻)을 청하니, 김유는 더욱 더 슬퍼하면서 차마 붓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탄금대 위에서 오락을 하였겠습니까. 김유가 탄금대에서 놀지 않았다는 것은 본 고을의 목백(牧伯)과 통판(通判)만 알뿐이 아니고 당시의 사민(士民)들도 사실상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평 이필형(李必亨)이 감히 근거없이 떠도는 말을 하면서 심지어 탄금대에서 술을 먹고 놀았다고 허위 사실로 성상을 속여 중죄를 덮어씌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그 무고함을 살피셔서 사론(士論)을 들어주시면 이는 김유 한 사람만의 다행일 뿐 아니라, 인정(仁政)을 베푸시는 일에도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가자 이조에 계하하였다. 이조가 아뢰기를,
 “김유의 일은 온 도의 사람들이 모두들 억울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순찰사 김시헌도 그 억울함을 말하였습니다. 이번 이정원의 상소 내용으로 보면 반드시 차마 탄금대에 올라가 놀지 못하였을 것인데, 기생을 데리고 가서 즐겼다는 것은 인정이나 천리로 미루어 보더라도 반드시 그런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비가 상소한 것은 사실상 공론에서 나온 것이므로

아마도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중대한 것이니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영상 이항복과 우상 김명원이 의계하기를,

“김유의 일은 사람들이 본디 억울하다고 하였으며 신들도 일찌기 무고(誣告)라고 들었습니다. 이정원 등이 상소한 것은 사실 온 도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그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좌상 이한국은 의계하기를,

“김유가 앞서 중죄를 받았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으며, 신도 듣고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때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동료들의 발언을 감히 강력하게 저지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번의 이 수의(收議)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른바 김유라는 사람은 어떠한 인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논죄를 당하게 된 것도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러한 일은 조정의 공론에서 나와야지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좌우될 수는 없으니, 이는 사체가 합당하지 않고 조정의 상벌이 그로 인해 조종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사대부들이 그렇게 모두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전일 사판(仕版)을 삭제시킨 사람들에 대해 하문하였을 때 유사가 한마디 말도 없이 방계(防啓)한 것이 무슨 뜻이었는가? 우선 그대로 두고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順天金氏 節齋公派 注書公 潭陽宗會 任員

- 고 문 : 지원, 용원(광주), 안천, 형관(광주), 길주(여산), 승현(장성)
- 명예회장 : 병석
- 회 장 : 형삼 010-611-3479, (061)381-1692
- 부 회 장 : 용석, 관영(개동), 형주(광주), 채진(광주), 기석(일산), 춘석(광주), 길수(부산), 준철(영천), 이후(서울)
- 이 사 : 환영(상리), 형규(장성), 성철(산내), 영환(산내), 두석, 종원, 완석, 재석, 기석, 광석(장성), 순종(장성), 원석(영천)
- 감 사 : 석원, 광원
- 사문대표 : 대석(북흥), 안천(광주), 종주(여산), 영환(산내), 환영(상리), 관영(개동), 윤택(고서), 형관(금과), 종진(진원), 채진(광주), 정엽(향교), 춘석(신촌) 용석(반룡1분), 형담(반룡2분), 석원(반룡3분), 재석(광주), 희석(금산), 주원(반룡), 이후(장성), 규석(서흥), 형훈(강쟁)
- 총 무 : 유석 011-641-6071, (061)383-3249

謹
弔

本會 副會長 墨堂 金三根 先生 啓
 本會 1月 22日 宿患으로 別世 하시어
 喪事 冥福을 빌고 이에 알리드립니다.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7년 12월 1일부터 ~ 2008년 1월 30일까지

부회장

- 1. 김철우 2007. 12. 27 경상북도 안동시

이사

- 1. 김인선 2007. 12. 7 경기도 고양시
- 2. 김기원 2007. 12. 11 충청남도 공주시
- 3. 김봉배 2007. 12.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 4. 김인환 2008. 1. 17 충청남도 금산군
- 5. 김백원 2008. 1. 25 전라남도 해남군
- 6. 김봉빈 2008. 1. 25 전라남도 해남군
- 7. 김정기 2008. 1. 25 전라남도 목포시
- 8. 김윤원 2008. 1. 25 전라남도 해남군
- 9. 김상석 2008. 1. 25 경기도 광주시

대의원

- 1. 김태석 2007. 12. 6 전라북도 전주시
- 2. 김오현 2007. 12. 10 경상북도 안동시
- 3. 김태현 2007. 12. 11 전라남도 해남군
- 4. 김동구 2007. 12. 20 경기도 고양시
- 5. 김승익 2007. 12. 27 전라남도 해남군
- 6. 김승부 2008. 1. 25 전라남도 해남군
- 7. 김승익 2008. 1. 25 전라남도 해남군
- 8. 김병윤 2008. 1. 25 전라남도 해남군
- 9. 김행석 2008. 1. 25 전라남도 해남군

운영위원

- 1. 김상욱 2007. 12. 21 광주광역시 동구

회원

- 1. 김창주 2007. 11. 19 경기도 평택시
- 2. 김영순 2007. 11. 20 강원도 철원군
- 3. 김인상 2007. 11. 22 충청남도 보령시
- 4. 김기환 2007. 11. 29 경상북도 문경시
- 5. 김동훈 2007. 12.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6. 김원섭 2007. 12. 6 서울특별시 광진구
- 7. 김상용 2007. 12. 5 전라북도 익산시
- 8. 김방석 2007. 12. 6 광주광역시 서구
- 9. 김인운 2007. 12. 7 서울특별시 송파구
- 10. 김진호 2007. 12. 7 서울특별시 노원구
- 11. 김동백 2007. 12. 10 경기도 용인시
- 12. 김남식 2007. 12. 6 전라남도 고흥군
- 13. 김장희 2007. 12. 7 전라북도 전주시
- 14. 김학연 2007. 12. 10 강원도 철원군
- 15. 김중일 2007. 12. 10 울산광역시 남구
- 16. 김해정 2007.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 17. 김순정 2007. 12. 7 충청남도 서산군
- 18. 김해동 2007. 12.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 김연관 2007. 12. 12 경기도 이천시
- 20. 김광도 2007. 12. 10 강원도 양구군
- 21. 김참원 2007. 12. 10 전라남도 해남군
- 22. 김현남 2007. 12. 12 전라남도 고흥군
- 23. 김운용 2007. 12.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4. 김종영 2007. 12. 12 강원도 인제군
- 25. 김복귀 2007. 12. 14 충청북도 충주시
- 26. 김호운 2007. 12. 17 울산광역시 중구
- 27. 김상환 2007. 12. 18 경기도 고양시

- 28. 김상환 2007. 12. 18 경기도 고양시
- 29. 김상호 2007. 12. 17 강원도 인제군
- 30. 김중근 2007. 12.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 31. 김형연 2007. 12.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 32. 김공남 2007. 12.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 33. 김규식 2007. 12. 21 충청남도 연기군
- 34. 김병철 2007. 12.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 35. 김원희 2007. 12. 21 경기도 화성시
- 36. 김준원 2007. 12. 21 광주광역시 동구
- 37. 김동준 2007. 12. 26 경기도 하남시
- 38. 김재용 2007. 12. 26 경기도 성남시
- 39. 김상만 2007. 12. 26 전라남도 해남군
- 40. 김병렬 2007. 12. 27 대전광역시 서구
- 41. 김용환 2007. 12. 31 강원도 원주시
- 42. 김동석 2008. 1. 2 경기도 김포시
- 43. 김춘근 2007. 12. 31 경상남도 남해군
- 44. 김진웅 2008. 1. 7 대전광역시 서구
- 45. 김중호 2008. 1. 7 강원도 동해시
- 46. 김동성 2008. 1. 8 서울특별시 동작구
- 47. 김승걸 2008. 1. 9 경상북도 안동시
- 48. 김두연 2008. 1. 21 경상북도 상주시
- 49. 김덕규 2008. 1. 24 경기도 안양시

무명인

- 1. 2007년 11월 26일 우리은행/대치역지점
- 2. 2007년 12월 7일 농협/상주시지점
- 3. 2007년 12월 10일 농협/서산축협지점
- 4. 2007년 12월 11일 농업협동/연무농협지점
- 5. 2007년 12월 21일 농협/대월농협

알림

월담선생실기 (국역본) 간행



우리 순천김문의 중흥조(中興祖)이신 양경공(襄景公) 절재공(節齋公) 북저공(北渚公) 등 세분 상신(相臣) 할아버님의 환로(宦路)에서의 경륜(經綸) 사항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취한 자료를 본회에서 서책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여건의 미비로 미루어오다 이번에 제1차로 양경공 할아버님의 월담선생실기(月潭先生實記)를 국역(國譯)하여 제현(諸賢)의 소술(所述)사항을 보완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국역본(國譯本)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이 한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할아버님의 경륜사항을 소상히 알게 될 것이며, 우리 종원들은 이를 널리 읽어서 가르침을 깨닫고 할아버님의 공훈을 현양할 것이며 존모해야 할 것이다.

- 中央宗親會 -

嚴冬雪寒에 尊體萬安하심을 祝願합니다.
 지난번 小生家의 喪事時에는 公私多忙하심에도 不
 拘하고 鄭重한 弔問을 하여 주시어 無事히 葬禮
 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進拜하여 人事를 드려야 될 줄 알고 있사오나 慌
 忙中于先 書面으로 人事를 드리는 바입니다.
 貴下와 貴宅에 萬福이 充滿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2007년 정해년 12월

罪生

김

정해수익찬
연연연연연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새해 소망들 모두 이루세요!
올 한 해도, 새 희망을 꿈꾸는 당신이 곁에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꿈
이
이
쓰어

행복
입니다

